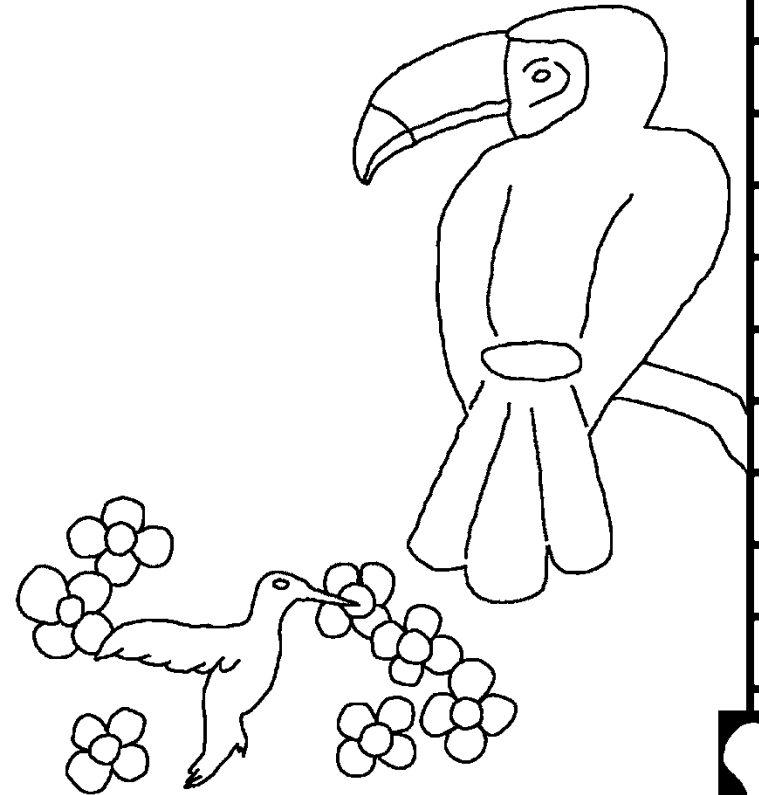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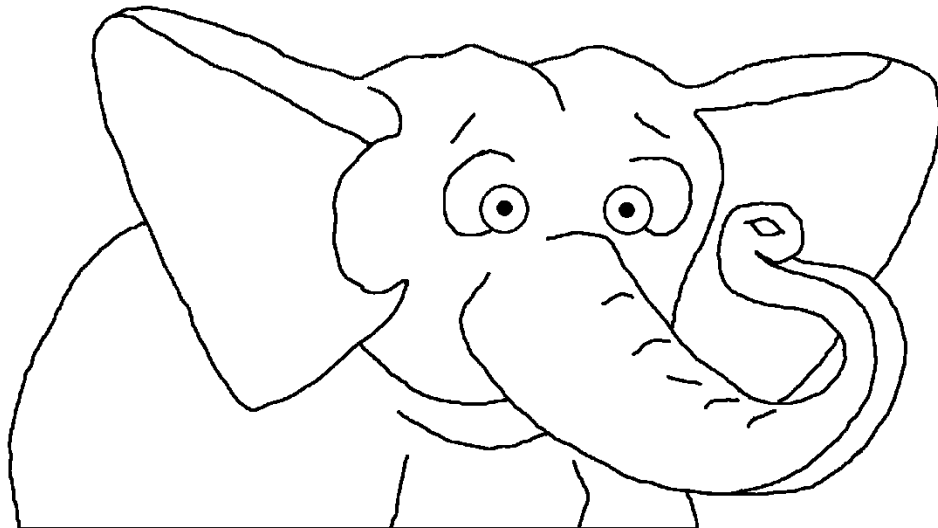


#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Alastair Paterson

각색: Bob Davies; Tammy S.

번역: Jin-Pil, Ju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26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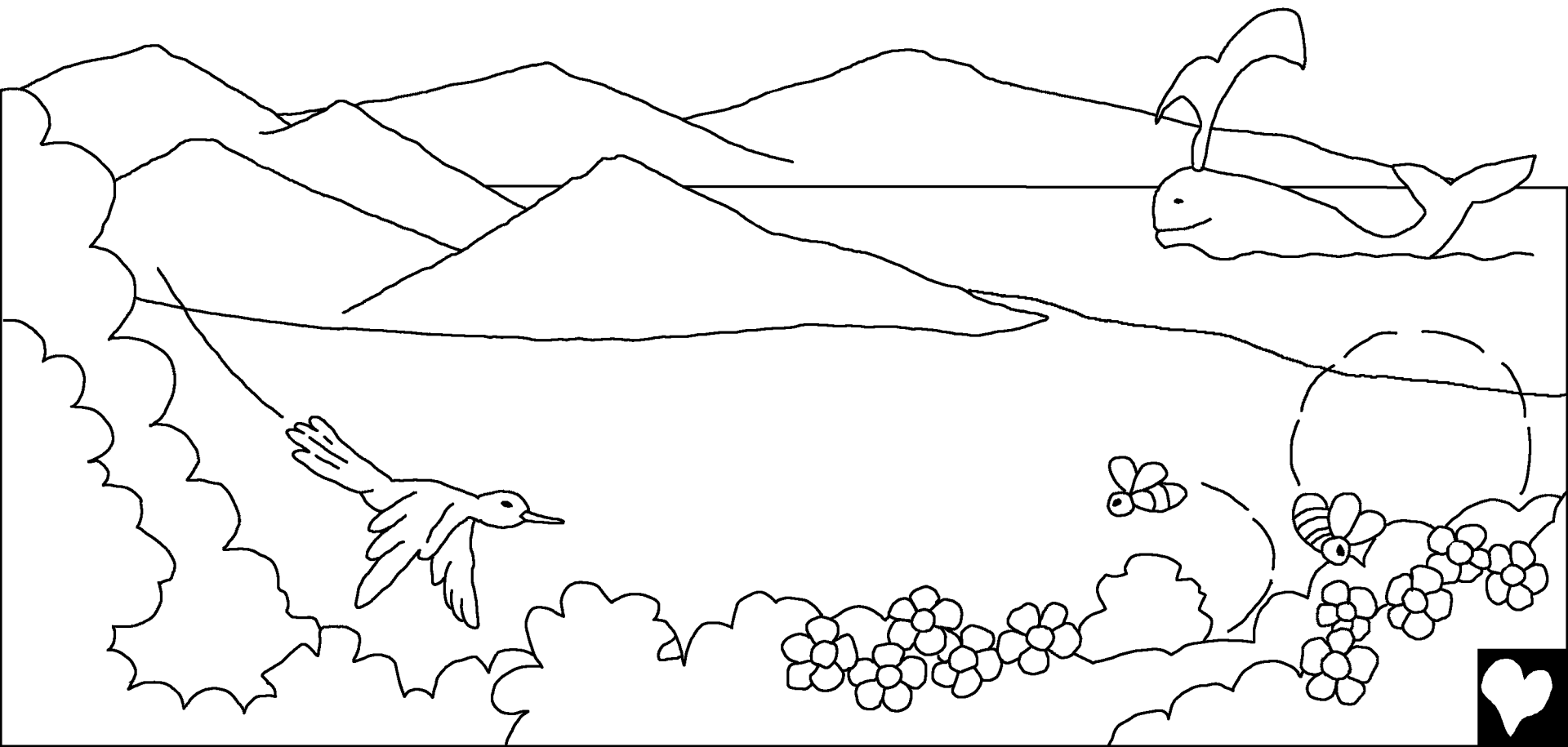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말하고 있다.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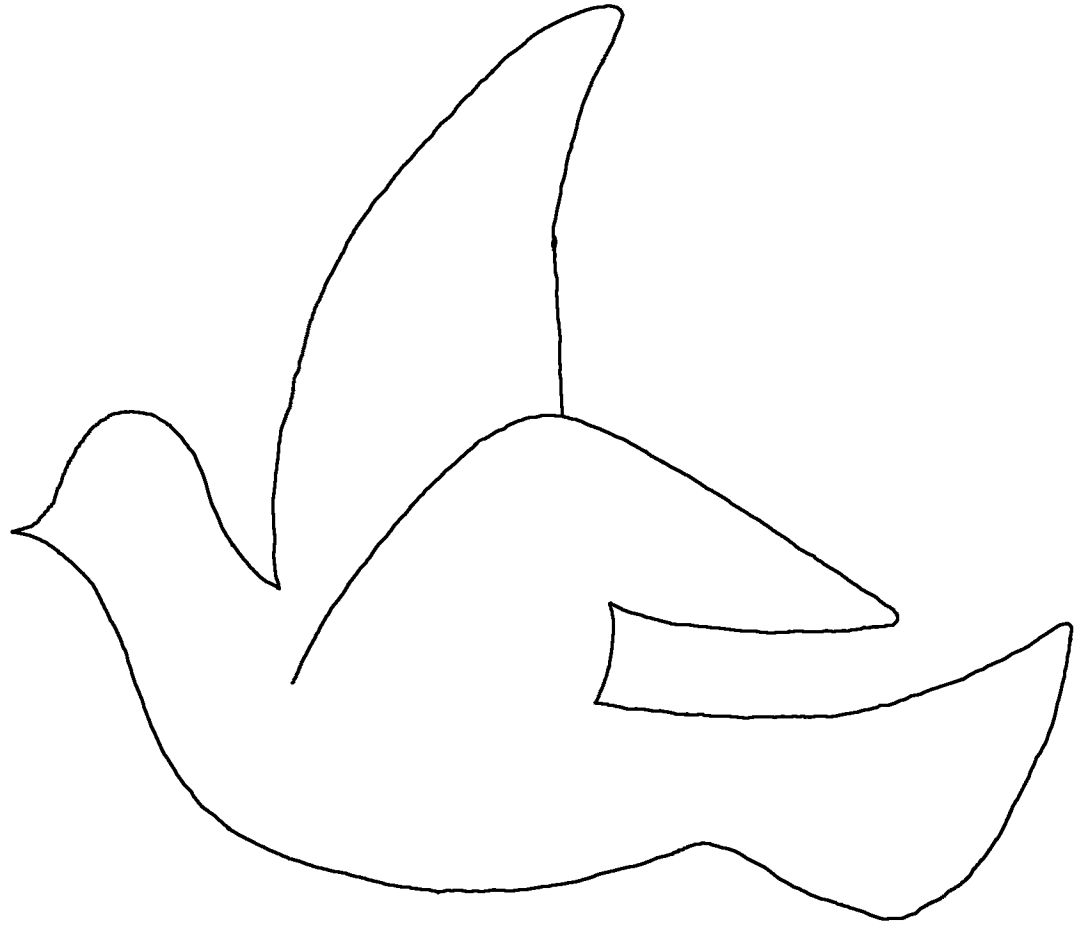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에게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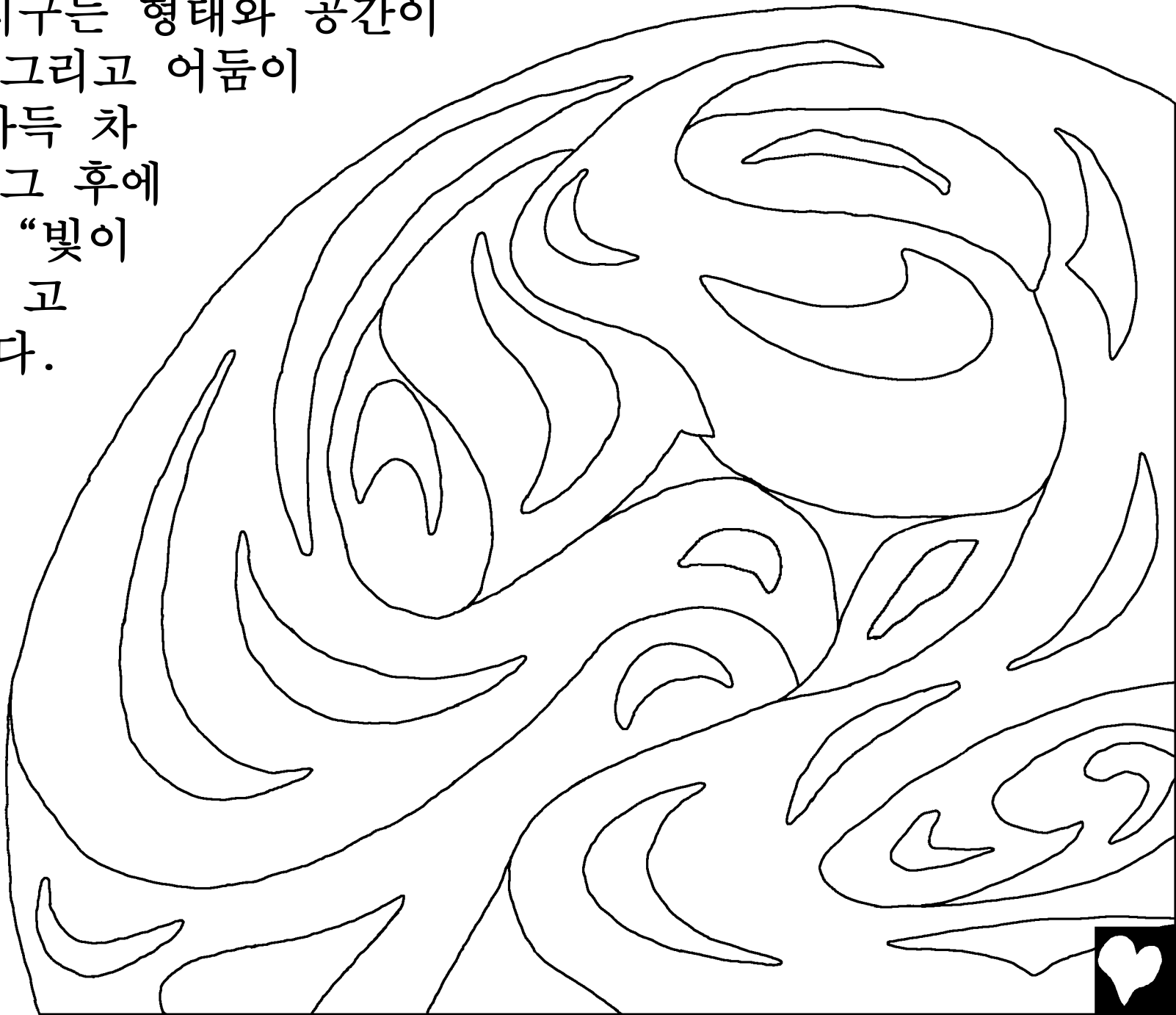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것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언덕과 초원, 향기로운 꽃들과 높은 나무들, 밝게 빛나는  
깃털을 가진 새들과 웅웅거리는 벌들,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고래들과 매끌매끌한 달팽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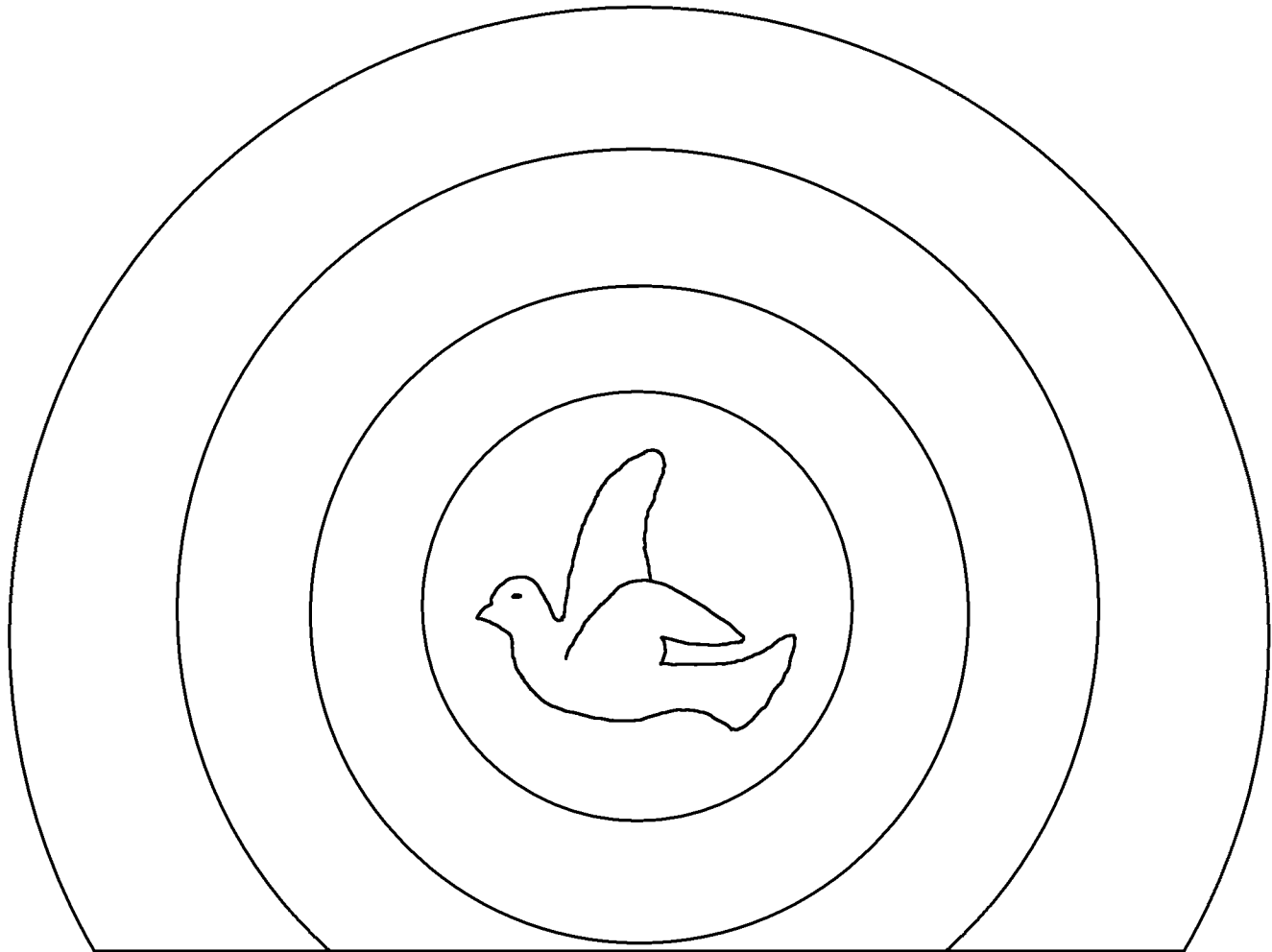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인 태초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떠한  
것들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빛과  
어둠도 없었다. 위와  
아래도 없었다. 어제와  
내일도 없었다. 시작이  
없는 하나님만이  
계셨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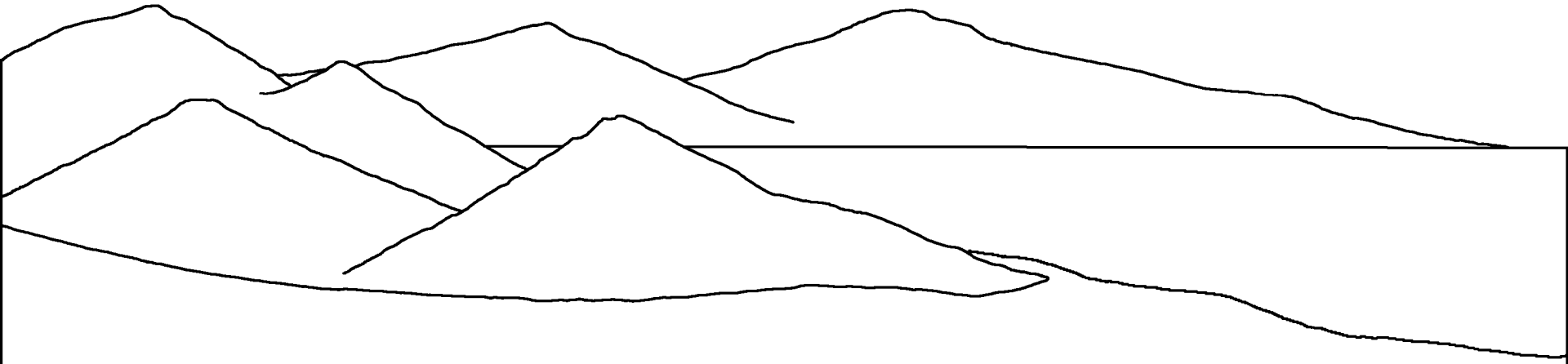
그리고 지구는 형태와 공간이  
없었다. 그리고 어둠이  
심연에 가득 차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 번째 날이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대양, 바다, 그리고 호수의 물을 하늘  
아래로 가져왔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마른 땅이 나오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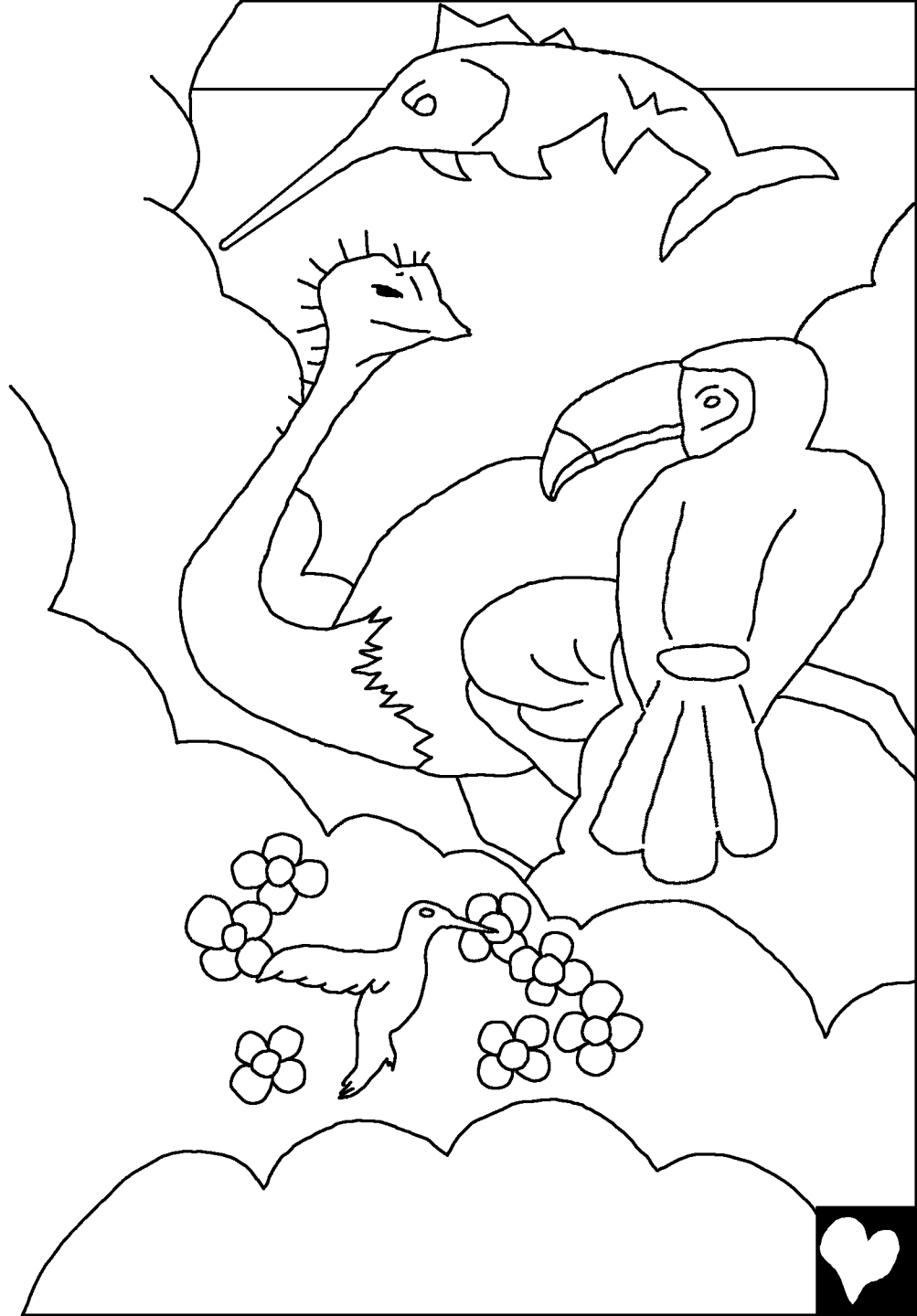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풀들과 꽃들, 관목들과 나무들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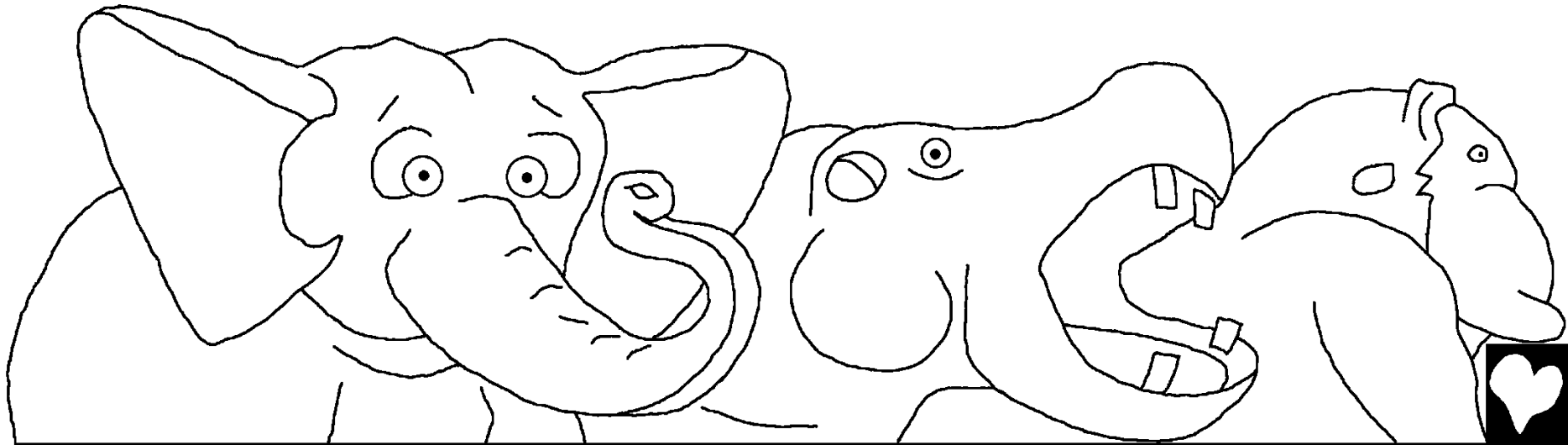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아무도 셀 수 없을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은 그  
다음으로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황새치와 작은 정어리들,  
긴 다리의 타조들과 행복한  
노래하는 작은 새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만들어 지구의 물에  
채우셨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새들을 만들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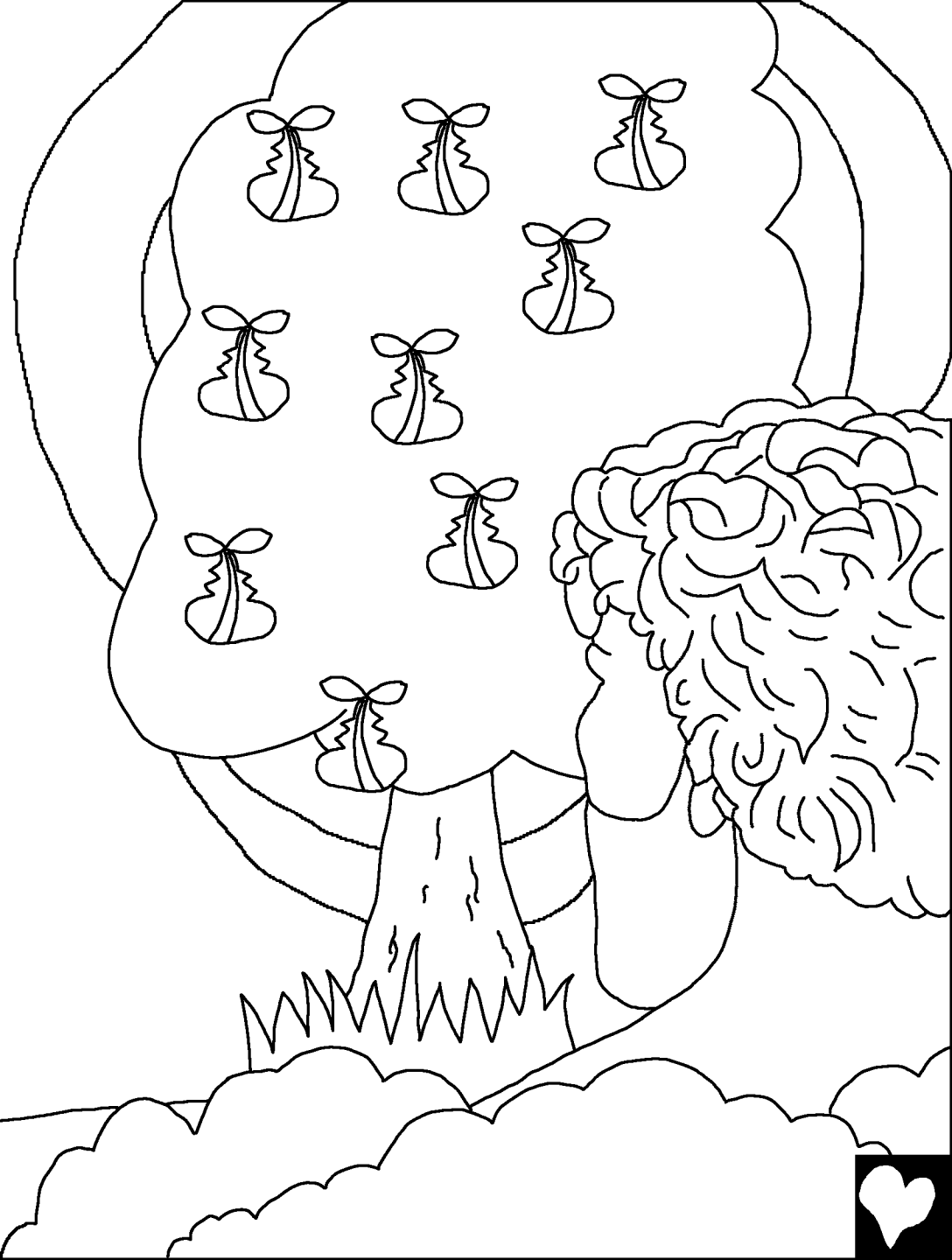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  
모든 동물과 곤충들과 파충류가 있으라.” 고 말씀하셨다.  
모든 동물과 곤충과 파충류가 땅에 나왔다. 땅을 떠들썩하게  
하는 코끼리들과 바쁜 비버들. 장난을 좋아하는 원숭이들과  
재치 없는 악어들, 몸부림치는 벌레들과 볼이 축 쳐진  
다람쥐들, 목이 긴 기린들과 그르렁거리는 고양이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그날에 만드셨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말 특별한 일을 여섯째 날에 하셨다. 이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 들판에는 음식들이 있었고, 시중들 동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동산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죽을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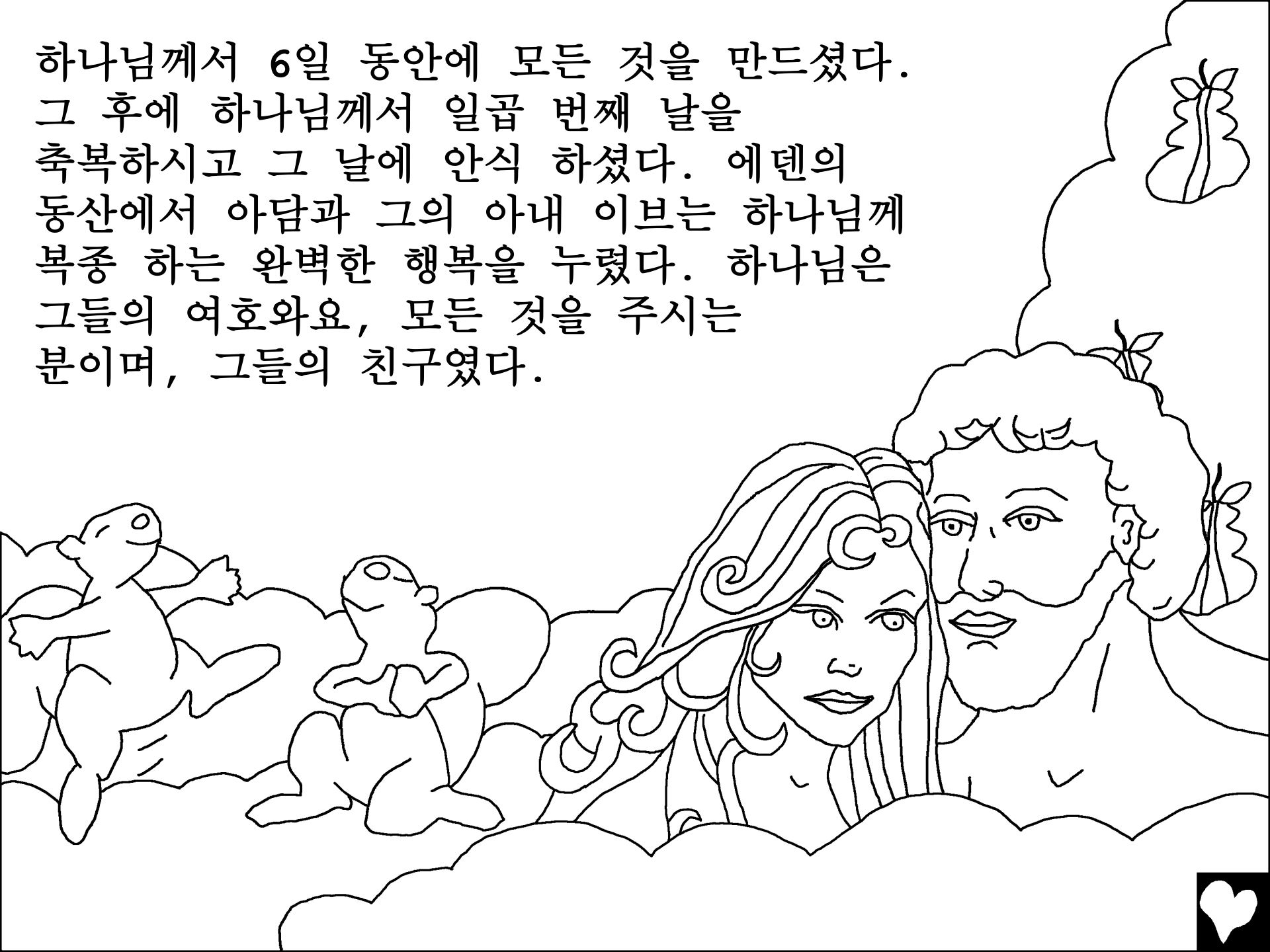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배필을 만들겠다. 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과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했을 것 이다. 하지만 모든 새들과 짐승들 중에 아담을 위한 적당한 짝은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깊은  
잠이 들게 했다. 자고 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는 아담에게 아주 좋은  
배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에 안식 하셨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하나님께  
복종 하는 완벽한 행복을 누렸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며, 그들의 친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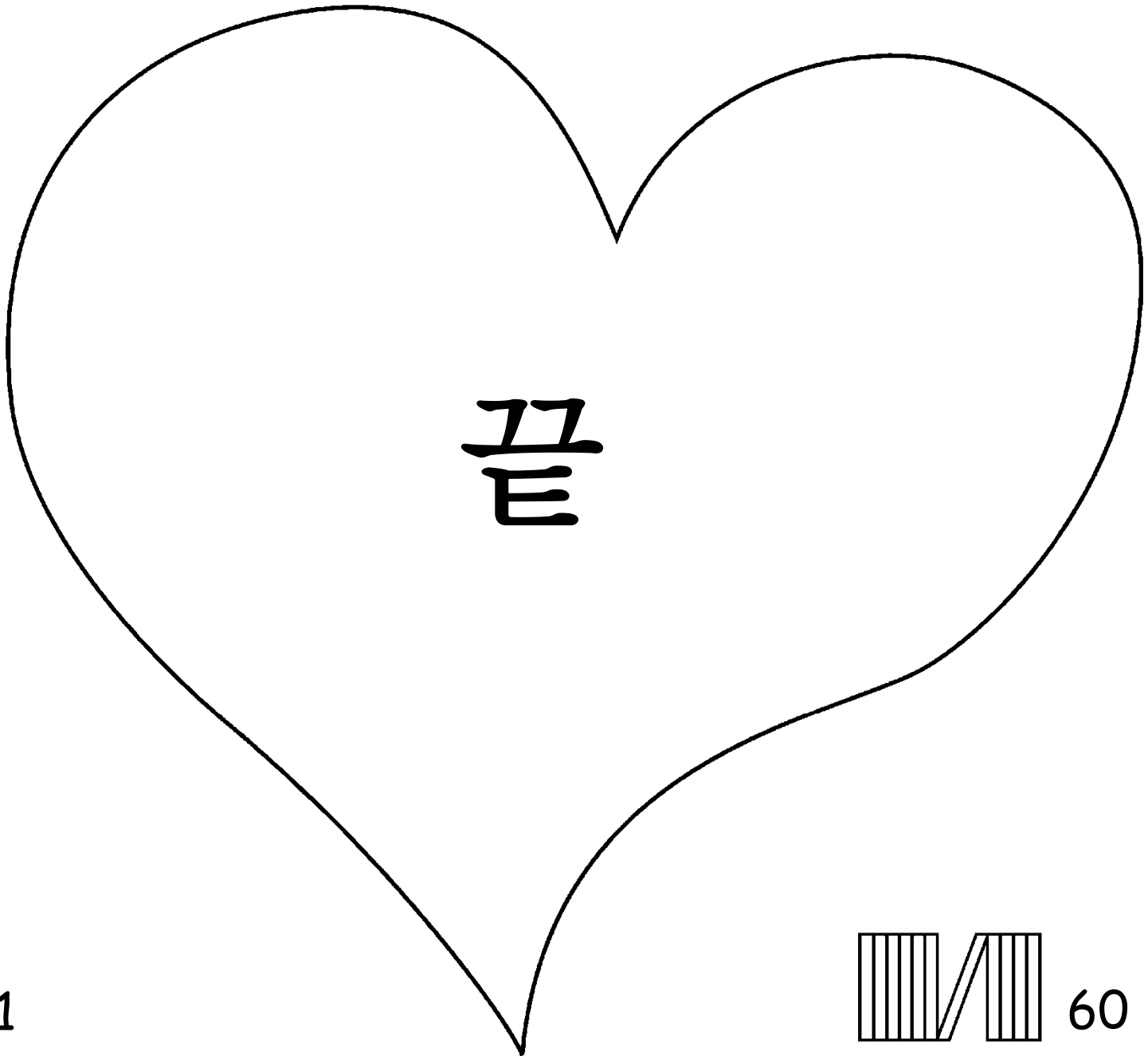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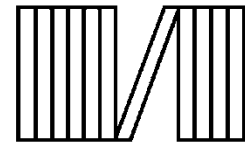
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1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